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서론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는 한 주의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9월의 세 번째 주는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가 특히 의미 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요일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기도문들을 준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내가 주께 나아가 주의 계명을 행하려 하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9:17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의 중간, 이 거룩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우리 마음도 새롭게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합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수요일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2) - 성장과 성숙의 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후서 3:17)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영적으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정이 가을의 차분한 성숙함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 시즌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기존의 성도들은 더욱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3) - 공동체와 섬김의 기도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2)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성별, 직업과 배경이 다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며,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9월 셋째주 (4) - 미래와 소망의 기도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심은 기도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들이 평화로 해결되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다양한 예배 정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